



## ■ 2009 스포츠 '희망을 쏜다'

<2> KIA 루키 안치홍·손정훈

### “명맥 끊긴 신인왕 내가 잇겠다”

2009년 신인왕을 향한 KIA 타이거즈 루키들의 야무진 도전이 시작된다.

KIA는 9차례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며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킨 명문 구단이지만 유독 신인왕과는 인연이 없다.

프로 데뷔 해인 1985년 0.304의 타율로 12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재간둥이' 이순철이 KIA의 유일한 신인왕으로 남아 있다.

24년 간 명맥이 끊긴 신인왕과 1997년 이후 미뤄온 팀의 'V10'을 향한 도전에 루키 안치홍(20·서울고·우투우타)과 손정훈(24·경희대·우투좌타)이 눈에 띈다.

고교 최고 유격수로 주목받았던 안치홍은 2차 1순위로, 대학 최고 유격수로 평가받은 손정훈은 2차 3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178cm, 80kg의 안치홍은 타고 난 손목 힘과 뛰어난 타격 밸런스로 눈길을 끄는 중장거리 타자다.

지난 2007년 이형종(서울고) 투수의 눈물로 화제가 됐던 광주일고와 서울고의 제41회 대통령배 결승에서는 정찬현(LG)을 상대로 2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안-손목 힘 뛰어난 슬러거

손-내야 모든 포지션 가능

“팀 4강 진출 디딤돌 되고요”

광주 지역 야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치홍은 이 대회에서 2학년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최다 타점, 안타, 홈런 '3관왕'을 차지했다.

손정훈은 178cm, 77kg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내야수다. 뛰어난 수비 감각과 빠른 판단력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는 게 손정훈의 장점이다.

안치홍이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면 손정훈은 호랑이 가족 한마당에서 구상진 트로트와 함께 현란한 춤 솜씨를 선보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등 쇼맨십이 뛰어나다.

상반된 스타일의 두 선수이지만 그라운드 위 안치홍과 손정훈은 같은 색 꿈을 꾸고 있다. '팀의 4강 진출'과 '신인왕'이 기축년 두 선수의 간절한 소망이다.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조범현 감독의 눈길을 끌며 2009 치열한 내야 싸움을 예고했던 두 선수는 지난해 12월에는 최희섭, 나지완과 함께 포항을 찾아 개인 훈련을 하며 프로 데뷔를 준비했다.

훈련도 힘들지 않았다는 안치홍은 “정신적으로 프로답게 새로 재무장을 하면서 뜻깊은 12월을 보냈다”며 “수비

위치 상관없이 그라운드에 나서 팀의 4강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신인왕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다 싶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프로에서 아직 내 능력이 검증된 게 아닌 만큼 자만하지 않고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신인왕에 도전해보고 싶다.”

연습벌레 손정훈은 새해 3가지 소원을 밝혔다. 건강, 1군 선수로의 활약 그리고 KIA 타이거즈의 우승이다.

“마무리 캠프와 포항 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 속에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12월을 보냈다. 신인왕의 명예도 얻고 싶지만 무엇보다 팀 우승에 함께 하고 싶다. 올 시즌이 끝난 뒤 팀의 우승에 손정훈이 있었구나 하는 팬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안치홍과 손정훈, 두 루키의 기축년은 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1·2군 합동 훈련을 통해 힘찬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정훈>

<안치홍>

## KIA 'V10' 향한 힘찬 포효

KIA 타이거즈가 5일 1·2군 선수단 합동 훈련을 시작으로 2009시즌 'V10'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KIA는 5일 오전 10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훈련을 갖고 2009시즌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7일에는 투수조 일부가 광으로 스프링캠프를 떠난다.

오늘부터 1·2군 합동 훈련

7일 투수 일부 광 캠프행

투·포수단이 합류하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는 광 스프링캠프는 2월3일까지 파세오 구장에서 치러지며 기초 체력훈련과 캐치볼, 웨이트 위주로 훈련이 진

행된다.

야수조는 오는 23일부터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의 오쿠라가하마구장을 찾아 체력훈련을 실시한 뒤 2월5일 광 훈련조와 합류해 실전대비 기술 및 전수훈련 등을 병행하게 된다.

2009 스프링캠프는 오는 3월4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추후 확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승엽 부부 “우리는 홍삼 광고 모델”

인삼공사와 1년 계약

베이징올림픽의 영웅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홍삼 광고모델로 나선다.

한국인삼공사는 4일 일본프로야구에서 활동 중인 이승엽과 아내 이승정씨를 정관장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5일부터 방영되는 광고는 지난 해 일본에서 부진을 겪은 이승엽이 끊임없는 훈련과 아내의 내조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상황을 그리며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가정을 응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인삼공사는 “이승엽 선수의 모습은 현재 국내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그가 보여준 것처럼 IMF를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난국을 이겨 나가리라는 믿음을 담아 이승엽 선수와 아내를 정관장의 새 얼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엽은 지난 해 8월 베이징올림픽에



국가대표 4번타자로 참가해 조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으나 정작 일본리그에서는 100여일 동안 2군에 머무는 등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

이에 이승엽은 오는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사령탑 김인식 감독의 간곡한 출전 요청에도 올시즌 팀내 입지 강화를 위해 태극마크를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희망을 안고 오른다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에서 많은 산악인이 50여m에 달하는 자연빙벽을 오르며 겨울스포츠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자 주말에만 100여명이 넘는 산악인이 구곡폭포 빙벽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